

이승과 저승 사이의 용서와 화해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의 인기 시인 황동규(65)가 열두 번째 시집 《우연에 기델 때도 있었다》(문학과지성사)를 냈다. 《버클리풍의 사랑노래》(2000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나에겐 제일 중요한 시집 같아요. 밤에 쓴 것도 많아요.”

네? 밤에 쓴 것들이라고요? 이번 시집의 시들은 밤夜이 써놓고 가고, 길路이 써놓고 가고, 설산雪山이 꿈에 나타나 ‘인간의 예禮’를 가르쳐 놓고 간다(《설산이 꿈에 나타나니》중) 더니 끌어내도 끌어내도 달겨붙는 시詩의 혀 같은 것이 있나 보다. 시력詩歷 40여 년에 걸맞는 거드름 한자락을 못 배워서인지 그가 입을 열면 생각과 말이 서로 앞다투듯 튀어나온다. “《풍장》(風葬. 1995년 연작시집) 이후 말이죠,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나만 죽는 게 억울했는데, 이젠 내 사후死後에 다른 사물이 그대로 있는 게 되레 마음이 포근해요.” 느닷없이 ‘동창생의 부음’ (시〈한 걸음 한 걸음 이리 알아지니〉의 첫 줄 ‘갈천문도 가고 김영무도 갔다’에서 보듯이 날아드는 나이에 이르면 생연生緣이 미숙하여 이생~生도 차생次生도 아닌 곳에 49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중음中陰의 시인이 되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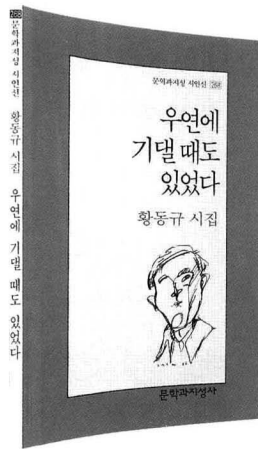
갈망 때문에 시를 쓴 때도 있었겠지만, 갈망보다는 오히려 시란 몸 안엿 것을 ‘게워 내는 울컥거림’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는 법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게을 때 일어나는 ‘몸의 떨림’, 그러다 찾아오는 ‘무연無然’이 또 시재가 된다. 그것은 ‘혼자임이 환해지’는 것, ‘혼자 그냥 걷’는 것(《풀이 무성한 좁은 길에서》중)이고, ‘마음을 비우고가 아니라/ 그냥 마음 없이 살고 싶’은 것(《쟁한 사랑노래》중)이다. 그것들이 삭아서 ‘저어새 하나/ 얽은 석양 물에 두 발목 담그고/ 무연히 서 있는’(《더 쟁한 사랑노래》중) 풍경이 되는 것이다.

그는 이번 시집이 ‘허무주의와 싸운 기록 같다’고 말했다. 그 때문인지 그가 끄집어 낸 시어 가운데 ‘혼자’와 ‘그냥’과 ‘무연’이 가장 도드라져 보인다. 시집 앞에 붙은 ‘시인의 말’도 딱 한 줄이다. ‘우연에 기델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시집 제목이 됐다.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요.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미적으로 밝혀주었으면 싶고요.” 그는 영문과 교수직을 올 봄 한 학기만 남겼다. 연전에 타계한 소설가 황순원의 아들도 어느새 정년퇴임인 것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첫 시집은 있으나 ‘마지막 시집’은 없는 게 아닐까. 황동규의 시는 언뜻 ‘흔들리는 어두움’이 된다. 그래서 또다시 ‘새벽’이다.

‘이 어둠도 빛도 아닌 • 그렇다고 빛이 아닌 것도 아닌, • 아 어찌할 거나
• 흑 사후死後 세상 빛깔이 이렇지나 앓을까, • 조금만 흔들어도 금시 생시가 다시 태어날’
(《부석사 무량수전에는 누가 시는가?》중).

대설大雪 날 찾아간 고 김현의 양평 무덤에서 그는 ‘작정한 듯 검푸른 하늘’을 보고 ‘가슴에 품고 온 인간 체온의 청주 한 잔 땅에 붓’고 돌아온다.(《대설 날》중) 결국 황동규의 시어는 ‘어슬어슬’이다. 《집보다는 길에서》혹은 《대설 날》같은 시에 보면 이 세상은 한없이 어슬어슬하다고 돼 있다. ‘어슬어슬’은 ‘날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무렵의 어스레한 모양’이다. 그것이 ‘시간의 속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어두움’인 것이며, 두 세상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시공時空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 불타를 만나 그들을 이기는 허무주의인 것이며, ‘예수도 미륵도 매운탕집도 없는 시간 속을/ 캄캄해질 때까지

김광일_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우연에 기델 때도 있었다》
황동규 지음 | 문학과지성사 |
120쪽 | 값 5,000원

마냥 걸어' (<집보다는 길에서>중) 가게 하는 시詩의 힘인 것이다. 이 시집의 몇몇 장에는 아버님의 추억이 서리서리 개켜져 있다. 열한 번째 시집과 열두 번째 시집 사이에 천봉지통天崩之痛을 겪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고졸한 유품 몇 가지를 그린 잔잔한 정경묘사에서 더 감동 받는다.

'부동산은 없고 • 아버님이 유산으로 내리신 동산動産 상자 한 달 만에 풀어보니
 • 마주앙 백포도주 5병, • 호주산 적포도주 1병, • 안동소주 400cc 1병,
 • 짐빔Jim Beam 반 병, • 품 좁은 가을꽃 무늬 셔츠 하나, • 잿빛 양말 4켢레,
 • 그리고 웃으시는 사진 한 장. • 가족 모두 집 나간 오후 • 꼭 끼는 가을꽃 무늬 셔츠 입고
 • 잿빛 양말 신고 • 답답해 전축마져 잠재우고 • 화분 느낌이 다른 화분보다 이파리에 살짝 먼저 가을물 칠한 베란에
 • 쪼그리고 앉아 • 실란蘭 꽃을 쳐다보며 앉아 있다.'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중)

제2부에 실린, <적막한 새소리>를 비롯한 10편의 시들은 '예수神로부터 자유로워지기'이다. 이 <적막한 새소리>는 원래는 미당 문학상의 수상작 대상이었으나 나중에 다른 시(<탁족>)로 수상작이 바뀌었다는 풍문 속에서 아마도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명편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시가 아닐까 한다.

이 시에는 앞서 말한 두 세상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가 가장 고밀도로 집적돼 있고, 천연하게 형상화돼 있다. 완전하게 어느 한편으로 가담할 수 없는 고단한 시인의 눈에는 '반쯤 숨겨진 곳'에 '들과 숲이 서로 밀고 당기다 놓아 둔' 다리가 있고, '산들이 긴 그림자를 거두어들일 때' 여서 밝음도 어두움도 아닌 것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 된다. 이 시에서 예수와 원효가 말하는 '마음의 죽음'이란 더 이상 고칠 상처가 없는 상태,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 어슬어슬 저무는 상태,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새소리조차 지워지기 시작하는 적요寂寥다. 요즘 몇몇 시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적멸寂滅'이어도 상관없다. 황동규는 "신神을 잃으면서 허무주의로 간 기록이요"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섭리에 대해 끝까지 섬김이고 모심의 자세이지 극복은 아니다. 그냥 이승과 저승의 어디메쯤에 묻히게 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용서요 화해다. 그것이 구원에까지 이르는 시인도 독자도 모른다. 다만 불타와 원효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입체적으로 친근해진다.

마사치오의 나뭇잎으로 아랫도리 가리고

•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 그림을 보며 • 원효가 예수에게 말했다.
 • "선생의 낙원은 빨래가 없는 곳이군요." • "그렇다. 지옥은 비누가 없는 곳이다."
 (<예수와 원효> 전문)

결국 생생이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뫼비우스띠 여러 개가 고리를 만들며 이어가는 형태로 돼 있다. 우리는 그 한 고리를 살다가 가는 것이다. 예수와 불타와 원효들이 득시글대는 곳에서 황동규는 가까스로 '인간'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살가운' (<밤여울>중) 것들끼리 그냥 살다가 가겠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저 아래 주차장에 누군가 켜두고 간 미등' 처럼, '배터리 나가기까지 계속 골똘한 생각에 잠'길 것 같은 자동차처럼,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이(<한 걸음 한 걸음 이리 알아지니>중). 卍